

새싹포켓지 9

9월 행사 소식

09. 07 ~ 10.10 : 우쿨렐레 매력에 빠지다.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9/7일~10/10까지 우쿨렐레를 배우게 되었다.

우쿨렐레란 1879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오면서 포르투갈의 전통악기인 브라기냐가 변형된 악기로 기타와 다르게 바다가 작고 4줄의 줄로만 구성되어있고, 악기의 이름은 연주할 때의 독특한 손놀림이 원주민에게는 마치 벼룩이 튀는 느낌을 주어 'Uku' 라는 벼룩의 뜻과 'lele'라는 툭툭 튀는 뜻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요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우쿨렐레가 유아들과 음률활동을 할 때 교사가 유아의 눈을 마주치며 함께 움직이는 활동이 가능하고, 유아들에게 우쿨렐레가 흥미를 느끼며 따라치기 쉬운 악기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취업 면접 시에도 우쿨렐레

자격증이나 이수증이 있다면 가산점이 붙는다고도 할 정도이다.

우수학과로 선정되어 학교의 지원을 받아 우쿨렐레를 배우게 된 유아교육과의 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 하며 학교 대부분이 붙겨진 늦은 시간에도 악기의 매력에 빠져 즐거운 모습이었다. 지금 당장은 지문이 얼얼하고 아프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워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09. 18 : 취업 특강, 'Story telling' 하라.



취업 마인드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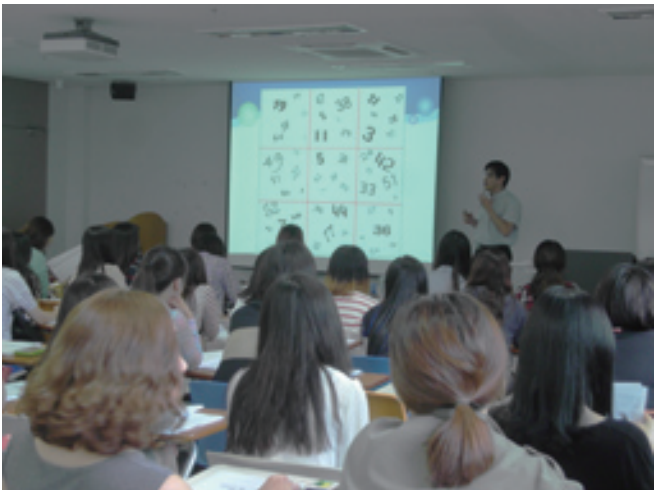
2012년 9월 18일, 우송관 506호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과 다른 과 학생들이 저학년 취업 마인드 강의를 위해 모였다. 강의가 시작되자 강의의 내용을 필기하려 하지만 김영환 강사님은 “적지 마라. 적는다고 다시 보냐.” 라며 빼있는 말을 유쾌하게 하셨다. 강사님은

강의 내내 “해줄 말이 너무 많다”며 “시간만 많았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다”면서 열정적인 강의를 쏟아내셨다. 2시간의 특강이 끝난 후 이후에 강의를 없는 학생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주시고서야 완전히 끝이 났다. 이번 특강은 꼭 취업이라는 것이 4학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펙이 아닌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강의였다. 이 특강을 들은 한 학생은 이미 취업의 어려움을 선배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간접적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취업이 4학년 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번 강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고 취업에 대해 좀 더 가깝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강사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있다.
취업캠프가 “Catch Me, Catch Job” 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본래는 4학년이 대상이지만 유아교육과는 대부분이 졸업하여 3학년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졸업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미리 준비해 두기에 최적의 시기인 듯하다. 학생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쓴 뒤 강사와 만나 컨설팅을 받아보기도 하고, 취업 전략을 세우기 위한 강의도 들었다. 전략의 첫 번째는 "Who am I" ,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나의 이미지를 알기 위해 10명에게 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단어 3개씩을 적어 달라고 하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 3개를 추려 문장을 만들어 봤다. 많이 들던 말도 있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학생들도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눈에 비치는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 등 여러 이미지를 찾는 여러 과정을 통해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선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제대로 알아야 취업에 가까워진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좋은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말이기도 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날의 강의를 앞으로 수없이 고쳐 쓰게 될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 본다.

09. 18 : 3학년을 위한 취업 특강 '나의 브랜드 만들기'



취업 특강을 듣기 위해 우송관에 모인 3학년 학생들
3월 20일 우송관 506호에서는 고학년을 위한 핵심

유아교육과 학생이 알아두면 좋을 것들!
인터넷 사이트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RISS**
<http://www.riss.kr>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 서비스**
<http://cutis.mest.go.kr>

자신을 믿는 당신이 진정한 위너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학기가 지날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이 자신과 잘 맞는지 또는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간단한 자존감 테스트를 해봅시다.

<질문> 당신이 버스나 지하철, 누군가를 기다릴 때 어디를 보고 있나요?

1. 휴대전화 2. 거울 3. 바닥 4. 주변 사람

1번을 선택하신 당신은 자존감 0%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이 과제를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보다는 성취했을 때 스스로 칭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번을 선택하신 당신은 자존감 50%입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지만 가끔은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할 때, 나보다 이 내용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자신감으로 발표하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3번을 선택하신 당신은 자존감 75%입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타인의 능력도 인정할 줄 아는 리더가 지녀야 할 능력도 갖춘 사람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4번을 선택하신 당신은 자존감 100%입니다.

당신은 자기가 언제나 최고라고 생각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만큼 타인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배려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어 자신의 당당함을 유지해 가세요.



‘학벌, 직업, 돈 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 는 의미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렇다면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무석 박사님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 5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것으로,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여 평화를 되찾아 봅시다.

둘째, '공사 중'(완벽하지 않은)인 자신을 인정하자.

공사 중인 건물을 비난해서는 안 되듯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며 스스로 노력해 보세요.

셋째, 완벽주의의 위장은 벗어버리자.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해지려고 다른 것을 잃기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넷째, 타인의 시각에 나를 맡기지 말자.

깨진 타인의 거울을 비추지 말자는 의미로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부닥쳐 자존감을 낮추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믿어보세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위로기능을 활용하자. 자기 위로기능은 인간정신기능 중에서 필수적 이랍니다. 남을 위로하지만 말고 자신을 위로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믿으 시고 위축되어 있기 보다는 당당하게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 Norman Vincent Peal -

우쿨렐레 체험기

1학년 강수진 학생의 '우쿨렐레 체험기'



1학년 B반 강수진 학생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리코더 부에 들어가 리코더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배우는 속도가 너무 더뎠다. 담당선생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정도였다.

학교행사에서 친구들이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기만 했다.

대학에 와서 피아노를 학교수업으로밖에 배워본 적이 없는 나는 피아노도 잘 치지 못해 학원을 다녀야 할지 매우 고민하다 알아보기까지 했었다.

그런 나에게 우쿨렐레는 한 줄기 빛 같았다. 별다른 수강료 없이 2시간씩 4번의 수업으로 쉽게 연주할 수 있다고 하니 나처럼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게다가 장래에 유치원 교사를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 나에게겐 더없이 좋은 악기가 아닐 수 없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가 악기를 잡았을 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설렘과 연주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였다.

우쿨렐레 강사님은 악기 하나하나를 조율해 주시면서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주셨다. 코드 잡는 법부터 코드를 이용한 연주법까지 어렵지 않은 수업이었고, 첫 수업만 들었는데도 간단한 코드의 동요는 천천히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제대로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없는 나는 첫 수업을 들은 후 신기했고 우쿨렐레의 매력에

빠져 버렸다. 두 번째 수업 때는 전 시간 보다 난이도가 높아져 조금 벅차긴 했지만 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다.

우쿨렐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졌고 4주로 마친다는 사실이 아쉬워지기까지 했다.

우쿨렐레를 통해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악기를 배우려 할 때마다 나는 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걱정만 앞서고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도전을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우쿨렐레를 배우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후에 취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악기를 구입하지 못해 집에서 연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였다.

수업시간에만 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다. 그렇지만 수업에 더더욱 집중해서 잘



우쿨렐레로 배운 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강수진 학생

배울 것이고 후에 여유가 될 때 악기를 구매하여 우쿨렐레 연주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쿨렐레를 통해 배운 것도, 얻은 것도 정말 많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만드는 사람들 .

지도교수 : 성원경 교수님

3학년 : 김진희

2학년 :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1학년 : 박지원